

2018년 3월 14일, 남원을 위미2리 위미2리경로당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.
강천홍(남, 1942년생, 남원을 위미2리)

- 줄거리: 도깨비는 고기를 좋아하여 고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. 그래서 제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도 고기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전한다.

[조사자] 이 동네 도체비 나타난다는 거는 잇우과?

[제보자] 도체비골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한정이 없어요.

[조사자] 어떨 때 나타나마썸?

[제보자] 외곽지에 나타나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부락 사람이 제사 먹으러 갔다와서 시간이 열두시나 한시 반까지라. 오다 보면은 으스스한 길이 있잖아.

[조사자] 전기도 없고.

[제보자] 캄캄하고 나무 있는 데도 우거지고 거기서 도체빛불이 나타나. 그런 디서. 심지어는 멀쩡한 사람이 오는데 정신이 혼이 빠져 붙어. 홀리게 해서 내중에는 밤새 도체비하고 싸웠으니까 팔 다리 상처 있고.

[조사자] 누구영 싸운 거?

[제보자] 모르지. 날 새면 엇어져 부니까. 야간에만 나타나는 거예요. 이젠 그런 것도 없고.

[조사자] 특별히 나타나는 지경이 잇우과?

[제보자] 지경이 아니고 으스스한데. 사람이 다녀도 굉장히 무서운 골.

도체비가 어떤 때 나타나냐면 밤에 생고기, 옛날에는 소고기를 하든 돼지고기를 잡아서 먹든 제사할 때 가져가고 가져오고 하잖아요. 그 고기를 가져가면 도체비가 그 고기에 반해갖고 나타난다 해요.

[조사자] 도체비가 고기 좋아해?

[제보자] 그래서 경험으로 느낀 사람들은 ‘밤에 고기를 갖고 다니지 말아라.’ 이렇게 해요.

- 핵심어: 도체비(도깨비), 소고기, 돼지고기, 밤, 제사, 도체비골